

| | | | | | |
|--|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금융위원회 |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 | | | | 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 |
| | 보도 | 배포 후 즉시 | 배포 | 2019.4.17.(수) | |
| 책 임 자 |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안 창 국(02-2100-2657) | 담 당 자 | 송 병 관 서기관 (02-2100-2659) | | |
| |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김 성 태(02-3774-9502) 김 영 춘(02-3774-9503) | | (코넥스 관련) 이 근 영 부서장 (02-3774-8610) (코스닥 관련) 이 호 성 부서장 (02-3774-9700) | | |

제 목 : 「혁신금융 추진방향」 후속조치로 「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」이 본격 시행 됩니다.

-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(1.30일) 및 혁신금융 추진방향(3.21일) 시행
-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코넥스 업무규정·상장규정·공시규정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-

- 일반투자자 **기본예탁금**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**인하**
-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**신속이전상장제도** 전면 **개편**
 - ① **이익미실현 기업**도 신속이전상장을 허용
 - ② 질적심사 항목 중 심사가 가장 엄격한 **기업계속성 심사** **완전 면제**
 - ③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**기업투명성 심사**만으로 신속이전상장 허용

1. 개 요

□ 혁신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*을 반영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·상장·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'19.4.17(수)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

○ 금번 승인된 규정 개정안은 '19.4.22(월)부터 시행될 예정

* 대량매매 및 LP관련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 개발후 '19.7.29(월) 시행

2. 주요내용

1

시장유동성 확대 및 투자제약요인 해소

①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한 기본예탁금 인하

-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

* 향후 예탁금 인하의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탁금 수준을 재조정 추진('19년말 평가 → '20년초 조정)

② 주식분산 의무를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하여 유통물량 확보

-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*의 지분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95%미만이 되도록 전체지분의 5%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

* 최대주주·특수관계인, 자사주, 주요주주(전문투자자, VC, 우리사주조합은 제외)

** 상장일부터 1년 경과후(기존 상장기업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기간 산정) 도래하는 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점검

- 분산의무 미충족시 상장폐지를 원칙으로 하되, 기업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개선계획 등을 감안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

③ 대규모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량매매제도 개선

-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확대 ($\pm 15\%$ → $\pm 30\%$)

-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(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적용)

④ 지정자문인의 LP 부담을 완화하여 지정자문인 참여 유인 부여

- 상장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으로서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*에는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**를 면제

* 6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이 250주 이상인 경우

** 매 거래일 14:30전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 10분 이내 매수·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

1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해서도 신속이전상장을 허용

※ <참고> 현행 코넥스→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제도

- ① (대상) 매출액, ROE, 영업이익 등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
- ② (혜택)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을 단축(45일→30일)
- ③ (투자자보호) 상장주선인에게 공모수량의 5%(25억원 이내)를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하여 책임성을 강화

- 코넥스 이익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*에 대한 신속이전 상장 허용

* 소액주주 지분율 10% & 코넥스 시가총액 2천억원(자본금 규모 초과) & 공모 후 기준시가총액 3천억원

- 투자자 보호와 상장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익미실현기업이 신속이전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보유기간을 확대(6개월 → 1년)

* 상장주선인 추천서에 기업실사 내용을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공시

2 신속이전 상장기업에 대한 질적심사 면제 내실화

- ① 신속이전 상장시 기업계속성 심사를 예외없이 면제
- ②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하여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 상장을 허용

【 경영안정성 심사 면제요건 】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최대주주 지분율 | 신규상장시 최대주주 지분율 30% 이상 |
| 최대주주 변경 | 최근 1년 이내 최대주주 변경이 없을 것 |
| 최대주주 자격 | 최대주주가 단기투자자(벤처금융, PEF 등)가 아닐 것 |
| 소송 등 | 경영권 관련 소송·분쟁이 없을 것 |

3 코스닥시장에 준하는 투자자보호 체계 구축

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

- 일반투자자 증가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7개 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공시 의무 부과(현행 29개 → 36개)

【 추가된 공시의무사항 】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투자 | · 자기자본의 20% 이상 신규시설투자, 시설외 투자 등 |
| | · 자기자본의 10% 이상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 결정 |
| 손익 | · 자산총액의 20% 이상 재해 발생 |
| | · 자기자본의 10% 이상 벌금 등 부과 |
| 소송 | · 자기자본의 10% 이상 소송 |
| | ·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|
| 주식분산 | · 주식분산기준 미충족 |

② 상위시장과 동일한 해명공시제도 도입

- 잘못된 풍문·보도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시를 통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

③ 지정자문인의 역할 및 책임 강화

- ① 기술특례 및 크라우드펀딩특례 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 유예 기간을 현행 2·3년에서 1년으로 단축
- ② 부실기업의 신속이전상장을 주관한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3·6개월에서 6개월·1년으로 확대

□ 상장 신청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통한 상장활성화 도모

- ① 전년도 임의감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연내 상장추진이 가능하도록, 반기 및 전년도(소급)에 대해 법정감사*를 받은 감사보고서로 상장신청을 허용

*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정감사인인 외부감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으로 한정

- ② 하반기 상장신청기업의 경우에도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(반기)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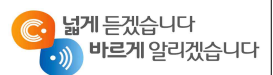
※ 코넥스기업의 클라우드펀딩·소액공모 활용 허용(자본시장법, 상반기중 국회 제출 예정) 및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[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, 규정변경예고(∼5.22) 중] 등은 관련 법규 개정절차 진행중

※ 규정 개정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'19.1.30일 발표한 「[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](#)」 참고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